

지역 중·소 건설사 전국 분양시장 잇단 진출

부동산 활황으로 광주·전남선 택지 구입 힘들어

고운시티아이·삼일건설 등 틈새시장 집중 공략

광주·전남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이 국내 주택건설 업계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형 주택건설사들도 잇따라 타지역 진출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부동산 활황으로 광주·전남 지역 택지 구입이 힘든 현실을 기회 삼아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 것이다.

14일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의 (주)고운시티아이(회장 정기섭)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남 서산에 '고운시티아이' 브랜드로 76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서산 테크노밸리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고운시티아이사가 기세를 몰아 2차 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전북 순창에도 연말 180가구 규모로 분양을 검토중이다. 올해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운시티아이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주택공사 및 관급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틈새시장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정석환 대표이사는 "광주의 경우 더 이상 토지를 찾기 힘들지만, 수도권이나 전국 시장은 아직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남아 있다"며 "살아남으려면 더욱 공격적인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에 기반을 둔 삼일건설(회장 최갑열)도 2013년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730가구의 주택공급을 시행, 분양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 연말엔 전남 아산에서도 526가구의 분양을 마쳤다. 아산의 입지가 좋아 내년 하반기에도 900가구를 공급 계획

중에 있으며 경기도 광주, 경북 경주에서도 토지를 매입하는 등 활발한 '외지 영업'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전남에서 출발한 우미건설은 이달 중 동탄2신도시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내 C-12블록에서 복합단지인 동탄 린트라스터스터 센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구 진출에 성공한 중견건설사들은 수도권을 텃밭 삼아 대형건설사를 제치고,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호반건설은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 분양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흥건설은 경기 광교신도시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해 2400여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의 광고신도시 중흥S-클래스공급을 앞두고 있다. 덕분에 사광능력평가 순위에서도 약진, 호반건설은 지난해 24위에서 9계단 올라 15위, 중흥건설은 11계단 상승해 52위에 각각 올랐다.

지역 주택건설업체가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또 분양에 성공하는 데는 탄탄한 기술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지역에서도 광주, 전남업체의 시공능력을 인정하는데다 품질 등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 고 있다"며 "택지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는 만큼,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지역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주얼리 매장 '골드듀'에서 다양한 종류의 골드바를 선보이고 있다. 각각 10g, 50g, 100g, 1kg 골드바.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11.72 (+12.80) 금리 (국고채 3년) 1.73%
- ▼ 코스닥 684.97 (-4.42) 환율 (USD) 1094.00원 (-4.60)

코스피 2100선 돌파

3년8개월만에 처음

일부선 거품 우려도

주가가 빠르게 오르막길을 달리면서 한편에서는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적 추세의 저금리와 유동성에 힘입어 주가가 과속지세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4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80포인트(0.61%) 오른 2111.72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21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8월 2일 2121.27(종가 기준)을 기록하고서 처음이다. 이런 양상이라면 2011년 5월 2일에 세운 사상 최고치 기록(2228.96)도 경신할 기세다.

코스닥 지수는 한층 더 가파른 상승세를 잇다가 14일 4.42포인트 내린 684.97로 장을 마감해 단기 급등 후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장중에는 2008년 1월 15일(696.11) 이후 처음으로 690선을 넘기도 했다.

이처럼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증

권자 일각에서는 버블 우려도 나올 만큼 불안한 기류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주가는 경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현 경제 상황이나 전망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강세장도 대규모로 풀린 유동성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현재 수출과 내수 모두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4%에서 3.1%로 낮췄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9%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전망이 맞다면 4%대의 성장에 밝아보이지 못한채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셈이다. 0%대의 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만 짊어지는 상황이다.

증권시장 한 관계자는 "어느 수준 이상을 버틸지라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펀더멘탈에 비해 가격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과연 2100을 넘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농지만 광주에 있어도 농작물재해보험 혜택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은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대상이 광주에 주소와 보험 목적물을 둔 농가였다면 올해부터는 농지만 광주에 있어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1만1000가구 이상의 농가가 재

해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비작물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6월5일까지며 원예시설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광주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국비 50%, 시비 15%, 자기부담 35%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 인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디자인센터, 매년 5억 투입

광주 도심에 인쇄분야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광주디자인센터는 14일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201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광주 인쇄산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앞으로 매년 국비 3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 등 5억원을 투입,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에 '광주 인쇄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쇄 연관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서는 기업지원과 홍보마케팅 등 인쇄 연관산업 육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동구 서남동 일원의 인쇄거리에는 338개의 인쇄업체와 관련 업체 등 550여개가 밀집해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인터넷 및 스마트 디바이스가 확산하면서 크게 위축되는 추세다. /임동률기자exian@

“성실 납세 기업 세무조사 완화해달라”

광주상의,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서 건의

광주지역 상공인들이 국세청에 “세무 조사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4일 의원회의실에서 김상열 회장과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 지역 상공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의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은 “지역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돼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기업활동까지 위축될까 우려가 크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통을 감안해 성실 납세기업

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줄 것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국세청의 사후검증이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운영방향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무리한 세무 조사는 지양하고 있다”면서 “장기적 성실 납세 중소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전적 성실신고지원에 힘입어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며 “사후검증은 예년에 비해 축소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또 조예욱 한국어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회장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광주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 기술기업과 연구소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박석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첨단기술기업의 육성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일몰기한 연장을 본청과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신청요건 완화,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운영, 명의인 실체소유자 확인제도 신청요건 완화 등 총 13건의 현장 및 서면건의가 이어졌고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본청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백화점 ‘금테크’ 바람

초저금리에 골드바 매출 급증

하락하던 금값이 최근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면서 백화점에서도 ‘금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최근 1%대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예·적금 등 금융상품보다 실물 자산의 대표 상품인 골드바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골드바 판매 브랜드인 ‘골드듀’의 골드바 매출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년 대비 약 65% 올랐다. 특히 지난 3일부터 진행된 골드바 프로모션 초반 열흘간의 매출 신장률이 2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바 매출은 100g 이하 소형 매출이 30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환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전남대학교

초 혼		추천 회원	재 혼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VIP 희망 여성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공무원, 교사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간호사, 회사원
				29-53세
				27-63세
				32-58세
				29-48세
				35-64세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D 6층

02) 521-4405

호남 전주시 서산동 지사 ☎3) 275-7766